

《綠窓新話》一書의 성격과 소설사적 가치

李時燦*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綠窓新話》의 成書 배경
 - III. 《綠窓新話》의 성격 규명
 - IV. 《綠窓新話》의 소설사적 가치
 - V. 나가는 말
-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기존에 北宋 소설집인 《靑瑣高議》와 宋末元初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집 《醉翁談錄》에 대한 연구를 통해¹⁾ 중국소설사에서 이들 宋代 소설집들의 특징과 지위를 고찰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綠窓新話》는 《靑瑣高議》와 《醉翁談錄》의 중간 단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문헌으로서 송대 소설이 상층 문인으로부터 일반 시민으로까지 독자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綠窓新話》의 성격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 학설이 분분하다. 우선 《綠窓新話》를 소개하는 공구서에서는 이 책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범주를 ‘傳奇小說集’²⁾, ‘宋代傳奇小說集’³⁾, ‘古代傳奇小說集’⁴⁾, ‘宋代傳奇小說摘選

*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1) 拙稿, 〈北宋 小說集《靑瑣高議》小考〉(《中國小說論叢》第35輯, 2011년), 《醉翁談錄》의 중국소설사적 의미(《漢文教育研究》第23號, 2004년).
- 2) 錢仲聯, 傅璇琮, 王運熙 等 主編, 《中國文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년, 646쪽. 黃卓越, 桑思奮 主編, 《中國大書典》, 北京, 中國書店, 1994년, 765쪽. 汪玢玲 主編 《中華古文獻大辭典(文學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4년, 656쪽.
- 3) 《中國大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년, 494쪽.

集'5)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시기적으로 唐宋 및 그 이전 시기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그 제재에 있어서도 志怪類나 雜記 등을 포함하지 않아 협소하게 설정되었다. 또 '宋代文言傳奇小說和筆記集'6), '傳奇小說和筆記集'7), '筆記傳奇小說集'8) 등으로 규정한 것 역시 이 책의 성격에 대해 다소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유형별로 나누어진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에 의해 소개된 《綠窓新話》의 성격과 관련한 대표적인 기술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胡士瑩이나 程毅中과 같은 학자는 각각 《話本小說概論》과 《宋元小說研究》라는 전문 저서에서 《綠窓新話》의 성격을 가리켜서 '당시 설화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참고서'라고 규정했는데9), 그 근거는 바로 《醉翁談錄》에서 당시 설화인들이 봐야 할 책으로 《綠窓新話》를 언급한 대목10) 때문이며, 이것은 그간 관련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관점이다. 張兵은 《宋遼金元小說史》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책의 성격을 아예 '話本小說集'이라고 규정하면서 《綠窓新話》의 출현은 宋代 話本소설의 창작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증표라고 했다.

이에 반해 周楞伽는 《綠窓新話》를 箋注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오히려 《醉翁談錄》이후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역시 《醉翁談錄》의 〈小說開關〉에 나오는 '新話'라는 대목에서 소개되는 것이 모두 역사인물과 관련된 것을 들었으며, 후대인들이 참고서목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11) 또한 秦川은

4) 馬良春, 李福田 主編, 《中國文學大辭典(第七卷)》,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1년, 5588쪽.

5) 寧稼雨,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濟南, 齊魯書社, 1996년, 157쪽.

6) 黃霖 主編, 《中國歷代小說辭典(第二卷)》,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3년, 471-472쪽.

7) 史仲文, 胡曉林 主編, 《中華文化精粹分類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8년, 743쪽.

8) 秦亢宗 主編, 《中國小說辭典》, 北京, 北京出版社, 1990년, 120쪽.

9)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0년, 150쪽. 程毅中, 《宋元小說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8년, 184쪽 참조.

10) 羅燁, 《醉翁談錄》〈小說開關〉: "引倬, 底倬, 須還《綠窓新話》.", 台北, 世界書局, 1965년, 3쪽.

11) 周楞伽 箋注, 《綠窓新話》, 上海, 1986년, 2-3쪽.

《中國古代文言小說總集研究》에서 이 책을 ‘準分類體小說總集’이라고 규정했으며¹²⁾, 董上德은 《古代戲曲小說敘事研究》에서 ‘설화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주로 이야기 요점을 담은 小說故事書’¹³⁾라고 하면서 특히 類書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돌출된다. 첫째는 바로 이 책이 類書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당시의 설화인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이야기가 될 만한 소재를 주로 ‘傳奇’나 ‘筆記’로부터 취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 시도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綠窓新話》란 책이 나오기까지의 成書 과정을 당시의 문학과 예술 환경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宋代에는 官方에서 《太平廣記》와 같은 대형 類書들을 편찬하면서 그 풍토가 계속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체제의 엄격함은 떨어지지만 민간에서도 소설과 관련하여 類書의 형식을 띤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되는 바, 그러한 환경 속에서 《綠窓新話》가 나오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는 《綠窓新話》에 수록된 내용들을 당시 여러 문헌들에 담긴 내용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의 성격을 재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綠窓新話》와 《醉翁談錄》에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책이 당시 설화인들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들을 통해 《綠窓新話》가 중국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II. 《綠窓新話》의 成書 배경

1. 宋代 類書의 유행과 소설집의 출현

宋代의 문화가 중국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찬란했다는 평가는 고금을 통하여 많

12) 秦川, 《中國古代文言小說總集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년, 42-43쪽.

13) 董上德, 《古代戲曲小說敘事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7년, 272쪽.

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가령 남송의 朱熹는 “國朝의 문명이 성한 것은 전왕 조가 미칠 수 없는 것이다.”¹⁴⁾라고 했다. 또 청말을 대표하는 학자인 王國維는 일찍이 중국 역사상 宋代를 가리켜 “宋代 사람들의 지적 활동은 문화의 여러 방면에서 이전의 漢唐 사람들과 이후의 元明 사람들이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¹⁵⁾라고 했으며,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인 陳寅恪도 “華夏 민족의 문화는 수천 년간 발전을 하는 가운데 宋代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¹⁶⁾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당대 학자인 鄧廣銘은 “兩宋 시기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도달한 정도는 중국 전체의 봉건사회 역사상 空前絶後라고 할 수 있다.”¹⁷⁾라고까지 평가했다.

이처럼 송대의 문화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바로 송 태조인 조광윤이 내세운 문치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 문치주의와 관련하여 五代의 혼란이 수습되고 난 후에 北宋 조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바로 기존의 문화적 유산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官方의 명의로 대규모의 類書들을 편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송 초기에 관방이 주도가 되어 편찬된 《太平廣記》, 《太平御覽》, 《冊府元龜》, 《文苑英華》 등은 전대의 목록학 전통을 계승한 대표적인 문헌들로 오늘날까지도 類書로써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서들의 특징은 이전의 유서들이 주로 지녔던 어휘사전적 기능을 뛰어넘어 백과사전과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唐代에 편찬된 《藝文類聚》나 《初學記》 등이 주로 문장을 지을 때 관련된 詩文이나 典故 등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되었다면, 송대의 유서들은 이러한 기능을 뛰어넘어 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진화했다. 가령 《冊府元龜》의 원래제목은 《歷代君臣事迹》이라 되어 있는데, 주로 五代 이전의 正史를 위주로 經書와 諸子書는 물론 野史와 小說 관련 문헌에서 역대로 모범이나 경계가 될 만한 인물들의 사적을 총망라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밖에 《事林廣記》나

14) “國朝文明之盛,前世莫及.” 朱熹注, 《楚辭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년, 300쪽.

15) “天水一朝人智之活動與文化之多方面, 前之漢唐, 後之元明, 皆所不逮也.” 王國維, 《王國維遺書》, 上海, 上海書店, 1983년, 70쪽.

16) “華夏民族之文化, 歷數千載之演進, 造極於趙宋之世.” 陳寅恪, 《金明館叢稿二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년, 245쪽.

17) “兩宋期內的物質文明和精神文明所達到的高度, 在中國整個封建社會歷史時期之內, 可以說是空前絶後的.” 鄧廣銘, 〈談談有關宋史研究的幾個問題〉, 《社會科學戰線》第2期, 1986년.

《事文類聚》 등도 기존의 어휘사전적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백과사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이처럼 宋人들은 건국초기부터 문화적으로 축적된 각종 자료들을 모으고 분류하여 학문적, 문화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구축했던 것이다.

송대 문치주의의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문학 방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太平廣記》의 출현은 향후 소설의 발전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백과사전식 小說類書라고 할 수 있는 《太平廣記》는 기존에 故事의 성질을 지닌 이야기들이 ‘經’과 ‘史’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립된 문헌으로 집대성되었으며, 이는 당시 소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소설장르를 다시 세분화하고 다양한 소설집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송대에는 많은 소설집이 출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靑瑣高議》, 《雲齊廣錄》, 《類說》, 《分門古今類事》, 《夷堅志》, 《醉翁談錄》 등을 들 수 있다. 《綠窓新話》의 출현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으로 역시 宋人들의 문치주의와 더불어 조성된 투철한 類型意識의 산물인 것이다.

2. 독서 인구의 급증

송대에 접어들어서야 《綠窓新話》와 같은 소설집이 다수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연히 독서 인구의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 독서 인구의 증가는 바로 문치주의라는 시대 경향의 산물이기도 한데 帝王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독서 열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宋史·趙普傳》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젊어서는 관리의 일을 익히고 학술에는 과문했는데, 재상이 되니 태조께서 항상 독서를 권장하였다. 만년에는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여 사저로 돌아가서는 문을 닫고 책함을 열어 책을 꺼낸 뒤 종일토록 독서를 했다.(少習吏事, 寡學術, 及爲相, 太祖常勸以讀書. 晚年手不釋卷, 每歸私第, 闔戶啓篋取書, 讀之竟日.)¹⁸⁾

宋人들의 이러한 독서열풍은 비단 경전이나 역사에만 그치지 않고 小說을 애독

18) 《宋史》卷二百五十六, 《列傳》第十五〈趙普〉, 北京, 中華書局, 1997년, 2285쪽.

하는 풍토도 낳았는데 당시 문인들의 추앙을 받았던 歐陽脩도 예외는 아니었다.

西洛에 있을 때, 일찍이 부하 관리에게 말하기를, “평생토록 오직 독서만을 좋아하여 앉으면 經典과 史書를 읽고 누우면 소설을 읽었으며, 화장실에 가서는 小辭를 열람하였으니 잠시라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라고 했다.(在西洛時, 嘗語僚屬言, 平生惟好讀書, 坐則讀經史, 臥則讀小說, 上廁則閱小辭, 蓋未嘗頃刻釋卷也.)¹⁹⁾

송대를 대표하는 문단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구양수도 소설을 탐독했다는 사실은 당시에 소설의 파급력이 어떠했는가를 대변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이 송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간 이면에는 다른 하나의 사회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과거제도와 관련한 독서인구의 급증이다. 기록에 의하면, 唐代에는 매년 과거시험에서 합격한 숫자가 이십 여명을 넘지 않았던 반면에 송대에는 약 10배에 가까운 이삼백 명을 헤아렸으며 많을 때는 오륙백 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더구나 眞宗 咸平 3년(1000년)에는 다양한 제도를 거쳐 선발된 관리가 모두 천팔백 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니²⁰⁾, 이는 오늘날 인재선발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제도에서 합격된 인원이 이 정도라면 그 외에 과거 준비생은 훨씬 많았을 것인데, 주목할 점은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은 생계를 위해 소설업에 종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懷才不遇했던 이러한 인물들은 소설을 비롯한 문화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의 울분과 지적 자산을 쏟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 《醉翁談錄》에는 소위 소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독과해야 하는 책들을 소개하는 한편 소설의 지위를 한껏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은 비록 말단의 학문이라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견문에 힘쓰는 것이다. 평범하고 얕은 지식을 담은 부류가 아니라 식견이 넓어지고 사리에 두루 통하는 이치를 지니고 있다. 어려서는 《太平廣記》를 읽고, 자라서는 역대의 역사서를 공부한다. 기이하게 전해지는 煙粉 이야기는 평소에 가슴 속에 쌓여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風月 이야기는 입가에서 놓여 있다. 《夷堅志》는 보지 않은 곳이 없고,

19) (宋)歐陽脩, 《歸田錄》, 北京, 中華書局, 1997년, 24쪽.

20) 본문의 해당 수치는 郭齊家, 《中國古代考試制度》,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년, 79-80쪽 참고.

《琇瑩集》에 실린 내용도 모두 꿰뚫고 있다. 動哨와 中哨에서는 《東山笑林》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고, 引倬과 底倬에서는 반드시 《綠窓新話》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숨겨 있는 詞로는 구양수와 소식, 황정견, 진사도의 아름다운 구절이 있고, 古詩로는 이백과 두보, 한유, 유종원의 작품이 있다. 이들 작품의 일부를 취해 안배할 때는 원작의 의도를 따르되 적절하게 부연함으로써 청중들이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세 치 혀만으로도 시시비비를 가리 수 있고, 만여 마디의 말을 대강 엮어서 고금을 강론할 수 있다. 이야기를 이어 가면 언제나 만여 가지가 이루어지고,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번번이 수천 회가 이어진다.(夫小說者, 雖爲末學, 優務多聞, 非庸常淺識之流, 有博覽該通之理. 幼習太平廣記, 長攻歷代史書. 煙粉奇傳, 素蘊胸次之間, 風月須知, 只在脣吻之上. 夷堅志無有不覽, 琇瑩集所載皆通. 動哨, 中哨, 莫非東山笑林, 引倬, 底倬, 須還綠窓新話. 論才詞有歐, 蘇, 黃, 陳佳句, 說古詩是李, 杜, 韓, 柳篇章. 舉斷模按, 師表規模, 靠敷演今看官清耳. 只凭三寸舌, 褒貶是非, 略傳萬餘言, 講論古今. 說收拾尋常有百萬套, 談話頭動輒是數千回.)²¹⁾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당시 소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소양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들이 섭렵한 서적들은 비단 소설류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서를 비롯해서 당시 최고 문인들의 詩詞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문치주의와 과거를 준비하는 인구의 급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宋人이 唐代 문인들과 다른 점은 단순히 소일거리나 ‘溫卷’²²⁾의 형식으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설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 인구의 급증은 소설을 주로 소비하는 독자층과 더불어 창작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경향은 다시 송대 도시구조의 변화와 시민문화의 흥성과 발맞추어 소설을 더욱 세분화되고 상업화된 길로 접어들게 했다.

21) 羅燁, 《醉翁談錄》, 台北, 世界書局, 1965년, 3쪽.

22) “唐代에 과거응시생은 먼저 고관들에게 의지하여 이름을 시험관에게 알린 후에 자신의 글을 보내고 며칠 후에 또 보냈는데, 이것을 일러 ‘溫卷’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幽怪錄》, 《傳奇》 등이 모두 이러한 것이다. 대개 이런 글은 여러 문체를 지니고 있는데 史才, 詩筆, 議論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唐之舉人, 先藉當世顯人, 以姓名達之主司, 然後以所業投獻, 逾數日又投, 謂之‘溫卷’, 如《幽怪錄》, 《傳奇》等皆是也. 蓋此等文備衆體, 可見史才, 詩筆, 議論.) (唐)李肇, 《唐國史補》卷下(《唐五代筆記小說大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년, 193쪽.

3. 宋代 도시구조와 시민문화의 흥성

宋代의 문화가 중국역사상 가장 뛰어날 수 있었던 저변에는 도시의 번성과 그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난 오락 시장의 수요라는 환경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北宋 수도인 開封은 그 이름 자체로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唐代의 長安이나 洛陽과 같은 도시의 구조와 운영과 좋은 대비가 된다. 즉 唐代의 도시들은 비록 당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고 각종 물품을 교역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으나 주로 城內에서 이루어졌으며 시장이 운영되는 시간 또한 官方이 철저히 통제하였다. 《唐會要》에는 시장의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景龍 원년 11월에 조서를 내렸다. 州縣이 아닌 모든 장소에는 시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시장은 오시에 북을 200번 두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해가 지기 전 七刻에 징을 300번 치면 흩어진다.(景龍元年十一月敕, 諸非州縣之所, 不得置市. 其市當以午時擊鼓二百下, 而衆大會, 日入前七刻, 擊鉦三百下, 散.)²³⁾

이처럼 官方에서는 시장의 개장과 파장 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그리고 역시 관방이 허가한 구역에만 시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坊市制'가 무너지고 開封을 비롯한 宋代의 도시는 부두나 다리 근처 등 성 안팎 어디든 시장이나 상점을 설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시장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²⁴⁾ 시장의 폭넓은 개방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그와 더불어 시장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 따라서 宋代의 시장은 단순히 물품의 교역 장소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오락적 수요를 담아낼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宋代에는 소위 '百戲'라고 하는 각종 민간 기예가 공연의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瓦舍'²⁵⁾라고 하는 문화시장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도시의 여러 모습을 그려 놓은 필기류의 여러 문헌들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23) (宋)王溥, 《唐會要》卷八十六(市), 台北, 世界書局, 1960년, 1581쪽.

24) 加藤繁, 《中國經濟史考證》第一卷, 北京, 商務印書館, 1959년, 277쪽.

25) 瓦舍는 송대에 공연을 주로 하는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瓦肆, 瓦子, 瓦市 등으로도 불렸다.

瓦舍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 때 기와처럼 모여들고, 갈 때 기와처럼 흩어진다는 뜻으로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瓦舍者, 謂其來時瓦合, 去時瓦解之義, 易聚易散也.)²⁶⁾

瓦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모이고 쉽게 흩어진다는 뜻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개봉이 수도였을 때 서민들이 방탕을 일삼는 곳이 되었고, 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타락하는 곳이 되었다.(瓦者, 野合易散之意也. 不知起於何時, 但在京師時, 甚爲士庶放蕩不羈之所, 亦爲子弟流連破壞之地.)²⁷⁾

瓦市는 南瓦·中瓦·大瓦·北瓦·蒲橋瓦가 있다. 北瓦가 유독 규모가 큰데 13개의 勾欄이 있다. 두 개의 勾欄은 상시적인 것으로 역사서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喬萬卷·許貢士·張解元이 있다. …… 說經(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長嘯和尚·彭道安·陸妙慧·陸妙淨이 있다. 小說(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蔡和·李公佐가 있다. 여성으로는 史惠英·小張四郎이 있는데 평생토록 北瓦에 있으면서 한 개의 勾欄을 차지해서 이야기했으며, 다른 瓦舍에 가서 공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小張四郎勾欄이라고 불렀다. …… 성 밖에는 20개의 瓦子(瓦子, 南瓦·中瓦·大瓦·北瓦·蒲橋瓦. 惟北瓦大, 有勾欄一十三座. 常是兩座勾欄, 專說史書, 喬萬卷, 許貢士, 張解元. …… 說經, 長嘯和尚·彭道安·陸妙慧·陸妙淨. 小說, 蔡和·李公佐. 女流, 史惠英·小張四郎, 一世只在北瓦, 占一座勾欄說話, 不會去別瓦作場, 人叫做小張四郎勾欄. …… 城外有二十座瓦子.)²⁸⁾

이처럼 송대의 도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또 그 시장 안에 설치된 瓦舍는 당시 서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소비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 가운데 눈여겨 볼 만한 것은 說經, 講史, 小說 등 서사문학과 관련된 '說話' 예술이 전대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일반인들에게 다양하게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口演 형태로 소비되는 '說話' 예술은 그 기저가 되는 소설 문학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說話人'이라 불리는 이야기꾼들을 매개로 소설 문학과 口演 예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수 계층의 문인을 넘어서 폭넓은 시민 대중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송대 이전까지 출현한 소설은 주로 단편을 위

26) (宋)吳自牧, 《夢梁錄》卷十九〈瓦舍〉, 西安, 三秦出版社, 2004년, 294쪽.

27) (宋)耐得翁, 《都城紀勝》〈瓦舍衆伎〉, 台北, 大立出版社, 1980년, 95쪽.

28) (宋)西湖老人, 《繁勝錄》, 台北, 大立出版社, 1980년, 123-124쪽.

주로 상층 문인들의 소일거리 정도의 독서물이었다면 송대에 출현한 소설은 단편보다 소설집의 형태를 띠고 있고 보다 더 많은 대중 독자들을 위해 설계되고 편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송인들의 類型意識과 결합되면서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아래의 도표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北宋	《東京夢華錄》	小說		講史說三分說五代史	說諢話
南宋	《都城紀勝》	小說: 烟粉·靈怪·傳奇·公案·朴刀·棍棒·發跡變泰	說經 說參請	講史書	說鐵騎兒
	《西湖老人繁勝錄》	小說	說經	史書	說諢話
	《夢梁錄》	小說: 烟粉·靈怪·傳奇·公案·朴刀·棍棒·發跡·踪參	談經 說參請	講史書	說諢經
	《武林舊事》	小說	說經	演史	說諢話
	《醉翁談錄》	小說: 烟粉·靈怪·傳奇·公案·朴刀·棍棒·神仙·妖術	講經	史書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송인들이 규정짓는 ‘소설’은 주로 불경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說經’과 역사 이야기에 해당하는 ‘講史’, 그리고 우스갯소리에 해당하는 ‘說諢話’를 제외한 제재를 가리킨다. 또한 그 소설은 다시 세분되는 바, 《綠窓新話》는 바로 이 가운데 애정류를 다룬 ‘傳奇’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독서물의 형태로 편집되었다기보다는 애정류 소설을 직업적으로 다루는 설화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성격 규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Ⅲ. 《綠窓新話》의 성격 규명

1. 설화인 필독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송대에는 독서 인구의 증가와 함께 官方과 민간 할 것 없이

각종 類書가 성행했다. 그러면 《綠窓新話》는 과연 어떤 성질의 책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의론이 분분하며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우선 胡士瑩, 程毅中, 歐陽代發과 같은 학자들은 당시 설화인들이 참고했던 參考書로 규정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정작 《綠窓新話》를 箋注한 周楞伽는 이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데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설화인이 부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면 이야기의 줄거리가 완전할수록 좋은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宋元話本은 처음과 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책처럼 줄거리의 대강만 남겨 놓고 생략해서 어떤 것은 머리만 남겨 놓고 끝은 잘라 버리고, 어떤 것은 중간을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부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설화인에게 제공해서 부연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면 편자의 목적은 바로 책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많은 부분이 이야기의 일부분을 인용한 뒤 평어를 달아놓았는데, 이것은 설화인에게는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며 오직 사람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제공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如果是供說話人數演講述, 故事情節應該愈完整愈好, 現在流傳下來的 宋元話本, 無不首尾完整, 像本書這樣刪節得僅剩故事大要, 或者存頭去尾, 或者略去中間一段, 怎麼能據以敷演講述呢? 何況書中還收有一部分詩歌作品, 根本無法用白話加以敷演講述. 既不是爲說話人提供演述資料, 那麼編者的目的就是想印成書供人看了. 這都是很有幾分可能, 因爲本書有好多條在節引故事以後加以評語, 這對於說話人是根本不需要的, 只有供人閱讀方才適用.)³⁰⁾

華東師範大學의 王慶華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주룽가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하면서 《綠窓新話》는 당시 설화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참고자료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만든 통속화된 문언소설 選本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통속화된 문언소설 선본은 자연스럽게 설화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참고서로 사용되어 어떤 이야기들은 부연할 수 있다고 했다.³¹⁾ 이러한 주장은

29) “這幾部書(《青瑣高議》·《綠窓新話》·《醉翁談錄》)都是當時說話人必須研讀的參考著作.”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2년, 150쪽; “《綠窓新話》是說話人必用的參考書” 程毅中, 《宋元小說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8년, 187쪽; “和《青瑣高議》一樣, 本書也是說話藝人的重要參考書.” 歐陽代發, 《話本小說史》, 武漢, 武漢出版社, 1997년, 65쪽.

30) 周楞伽 箋注, 《綠窓新話》, 上海, 1986년, 2쪽.

《綠窓新話》의 편집 의도가 일반 대중 독서물로 삼았다는 것으로 설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화인은 구연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곁에 두고 항상 참고하는 자료는 반드시 이야기의 전부를 실을 필요가 없다. 《綠窓新話》가 說話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서적이라는 근거로는 앞에서 인용한 《醉翁談錄》의 “引倬과 底倬에서는 반드시 《綠窓新話》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醉翁談錄》은 거의 대부분 연구자가 동의하는 설화인 참고서이다. 소위 引倬과 底倬이라고 하는 것은 화본에서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이나 본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인용하는 관련된 짧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설화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즉흥성에 그 생명력이 살아난다. 그것은 청중의 수준이나 구연하는 장소와 계절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화인은 《太平廣記》를 비롯한 많은 소설집에 나오는 얘기를 꿰뚫고 있어야 하며, 청중이 다 모이기 전이나 혹은 청중이 다 모였더라도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나 날씨나 풍경과 관련된 詩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연을 하기 직전이나 평소에 손에 들고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정작 필요한 참고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나열한 소설집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의 줄거리를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본이 필요하며, 그 속에는 자주 인용해야 할 詩歌들로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의 대강만 알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이들은 짧게는 몇 십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공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唐代 元稹이 남긴 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白居易가 한 번은 원진에게 ‘一枝話’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寅時에서 시작해서 巳時가 되도록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³³⁾

31) 王慶華, 〈《青瑣高議》《綠窓新話》等標題形式並非“做話本”〉(《蘭州學刊》2010年第7期), 184쪽.

32) 黃霖, 韓同文 選注, 《中國歷代小說論著選》,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2000년, 91-96쪽 참조.

33) 元稹 〈酬白學士代書一百韻〉: “翰墨題名盡, 光陰聽話移. 樂天每與予遊從, 無不書名屋壁, 又嘗於新昌宅, 說(一枝花)話, 自寅至巳, 猶未畢詞也.”(《元稹集》, 北京, 中華書局, 2000년), 116-117쪽.

눈으로 보고 읽는 독서물이 아니라 설화인이라는 전문 이야기꾼이 청중을 대상으로 들려주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야기는 원작에 비해 얼마든지 짧게 혹은 길게 가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설화 예술의 가장 큰 서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周楞伽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서사적 특징을 간과하고 단순히 일대일로 대응되는 전체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화인의 참고서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綠窓新話》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속적인 독서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편집되었다는 주장은 이 책이 설화인의 참고서로 쓰였을 가능성보다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 전문적인 설화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소설을 읽을 때 전체 줄거리의 요약본이나 일부분만을 찾아 읽을 가능성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지극히 낮다. 특히 애정소설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綠窓新話》는 전편을 통해 애정소설류만을 선별해서 수록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등장하는 인물의 간단한 내력이나 간추린 내용만을 선별해서 節錄했다. 이렇게 편집한 것은 분명 그 목적이 존재하는 바, 필자는 그것이 주로 설화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시간적 효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핵심 내용만을 절록해서 모아 놓으면 설화인들은 이 책을 늘 숙독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이야기들의 전체 내용을 복습 삼아 다시 떠올릴 수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만을 빨리 숙지하고 무대에 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임기응변에 능수능란한 설화인들은 그 속의 내용들을 응용하여 어떤 것은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入話’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본 이야기에 해당하는 ‘正話’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일부 작품은 아예 詩歌만 수록하고 스토리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백화로 부연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화인들의 참고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결함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이야기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명대에 출판된 화본소설을 보면 전편에 걸쳐 많은 詩詞가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詩詞는 이야기 口演을 하는 현장에서 설화인들이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암기를 해야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인들은 평소에 가급적이면 많은 詩詞를 암송해야 하며, 설화인들의 참고서에는 詩詞가 필수적인

요소로 수록되어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애정 관련 고사를 이야기할 때는 관련 주제와 부합하는 詩詞의 수집이 불가피하다. 《綠窓新話》나 《醉翁談錄》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이야기 자체보다는 詩詞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다 나름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령 《醉翁談錄》‘乙集’의 〈唐宮人制短袍詩〉, 〈金陵眞氏有詩才〉, 〈韓玉父尋夫題漢口鋪〉, 〈王氏詩回吳上舍〉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詩를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丙集’에는 송대의 유명한 詞人 柳永과 기녀들이 주고받은 詞를 매개로 한 짧은 일화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戊集’에는 아예 전편에 걸쳐 당시 유명한 기녀들을 모두 꽃에 비유한 칠언절구로 묘사해 놓았다. 이러한 詩詞들은 설화인들이 口演을 하다가 이야기의 중간에 적절하게 인용이 가능한 것들로 볼 수 있으며, 후대의 화본소 설집에는 직접적으로 삽입된 것도 발견할 수 있다. 《醉翁談錄》에서는 《綠窓新話》에 수록된 작품 속의 詩詞를 다른 이야기 속에 삽입하는 실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綠窓新話》에 수록된 〈楊生私通孫玉娘〉에는 다음과 같은 두 편의 시가 삽입되어 있다.

牛郎織女本天仙,	견우와 직녀는 본래 하늘의 신선이었는데,
阻隔銀河路杳然.	은하수에 가로 막혀 서로 만날 길이 묘연하구나.
此夕猶能相會合,	오늘 밤은 서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으니,
人間何事不團圓?	인간 세상에 어떤 만남인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才子佳人兩相宜,	才子와佳人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맞으니,
置福端由禍所基.	禍가福을 낳는 발단이 되었네.
永作夫妻諧汝願,	영원히 부부로 삼아 너의 뜻대로 해로하게 할지니,
不勞鑽穴隙相窺.	구멍을 파고 들어가 서로 몰래 볼 필요가 없다네.

이 두 편의 시는 《醉翁談錄》‘乙集’에 수록된 〈靜女私通陳彥臣〉과 〈憲臺王剛中花判〉이란 이야기 속에 각각 나누어서 삽입되어 있다. 이처럼 詩詞는 설화인이 구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속에 삽입되고 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작품은 아예 詩歌만 수록했기 때문에 설화인들의 참고서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2. 애정소설 類書로서의 교량적 역할

《綠窓新話》는 애정을 주제로 한 154개의 작품이 類書의 형태로 편집되어 있으며, 宋代 이전에는 출현한 적이 없다. 또한 類書의 형태로 편집되었다는 것은 편자가 의식하는 가시적인 독서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전말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인이기보다는 직업적인 설화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綠窓新話》는 어떤 형태로 편집되었고, 類書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官方에서 편찬한 《太平廣記》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類書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첫 작품인 〈劉阮遇天台仙女〉부터 20번째 작품인 〈韋卿娶華陰神女〉까지는 ‘女仙’·‘書仙’·‘水仙’·‘龍女’·‘神女’처럼 세속의 남자와 선녀의 만남을 주제로 담은 작품들이다. 21번째 작품인 〈金彦遊春遇會娘〉부터 上卷 마지막이자 72번째 작품인 〈唐明皇咽助情花〉까지는 세속에 있는 남녀 간의 만남과 애정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작품 목차상 구성은 또 한 층 더 세분되어 있는데, 가령 〈楊生私通孫玉娘〉·〈張浩私通李鶯鶯〉·〈華春娘通徐君亮〉·〈何會娘通張彥卿〉·〈趙飛燕私通赤鳳〉·〈楊貴妃私安祿山〉·〈秦太后私通嫪毐〉·〈李少婦私通封師〉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私通’을 키워드로 하여 다소 비윤리적인 만남을 따로 모아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下卷에 수록된 작품들 또한 더욱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74번째 작품인 〈李娃使鄭子登科〉을 비롯한 〈舊桃諫寇公節用〉·〈譚意哥教張氏子〉·〈聶勝瓊事李公妻〉 등의 네 작품은 모두 德性을 갖추어 남자를 잘 이끈 名娼들을 칭송했고, 78번째 작품인 〈楊愛愛不嫁後夫〉부터 83번째 작품인 〈歌者婦拒奸斷頸〉까지는 모두 여인의 貞節을 칭송했다. 86번째 작품인 〈曹大家高才著史〉부터 93번째 작품인 〈趙才卿黠慧敏詞〉까지는 詩詞 등에 뛰어난 재주를 지닌 여인들을 다루었고, 100번째 작품인 〈宋玉辨己不好色〉부터 105번째 작품인 〈張公嫌李氏醜容〉까지는 여인들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116번째 작품인 〈明皇愛花奴羯鼓〉부터 143번째 작품인 〈康居國女舞胡旋〉까지는 琵琶, 箏篋 등 악기에 능한 여인들과 노래와 춤에 뛰어난 여인들에 관한 기록이다. 144번째 작품인 〈吳絳仙蛾綠畫眉〉부터 마지막 작품인 〈號夫人自有美艷〉까지는 절세의 미인들을

기록했다. 전체 작품을 더욱 세분하여 표로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上卷				下卷				
번호	작품명	핵심어	분류	번호	작품명		분류	
1	劉阮遇天台仙女	遇	遇仙	78	楊愛愛不嫁後夫	不嫁	守節	
2	裴航遇藍橋雲英	遇		79	張住住不負正婚	不負		
3	王子高遇芙蓉仙	遇	奇遇	80	姚玉京持志割耳	持志		
4	賢鷄君遇西真仙	遇		81	王凝妻守節斷臂	守節		
5	封陟拒上元夫人	拒		82	鄭小娘遇賊赴江	赴江		
6	陳純會玉源夫人	會		83	歌者婦拒奸斷頸	斷頸		
7	任生娶天上書仙	娶		84	馮燕殺主將之妻	殺		
8	謝生娶江中水仙	娶		85	嚴武斃乃父之妾	斃		
9	崔生遇玉卮娘子	遇	遇仙	86	曹大家高才著史	著史		文史
10	星女配姚御史兒	配		87	蔡文姬博學知音	知音		
11	邢鳳遇西湖水仙	遇	奇遇	88	張建封家姬吟詩	吟詩	辭令	
12	永娘配翠雲洞仙	配		89	鄭康成家婢引詩	引詩		
13	德麟娶洞庭韋女	娶		90	鄭都知醜藉巧談	巧談		
14	錢忠娶吳江仙女	娶		91	點酥娘精神善對	善對		
15	王軒苧羅逢西子	逢		92	薛濤妓滑稽改令	改令		
16	張翕驪山遇太真	遇		93	趙才卿點慧啟詞	啟詞		
17	韋生遇后土夫人	遇	神遇	94	党家妓不識雪景	不識	滑稽	
18	劉卿遇康皇廟女	遇		95	柳家婢不事牙郎	不事		
19	柳毅娶洞庭龍女	娶		96	翠鬢以玉篋結主	結主		
20	韋卿娶華陰神女	娶	奇遇	97	任昉以木刀誑妓	誑妓		
21	金彦遊春遇會娘	遇		98	張才翁欲動印守	欲動		
22	張詵遊春得佳偶	得		99	柳耆卿欲見孫相	欲見		
23	崔護覓水逢女子	逢		100	宋玉辨己不好色	好色		
24	郭華買脂慕粉郎	慕		101	譚銖譏人偏重色	重色		
25	杜牧之觀張好好	觀		102	徐令女干陳太師	干		
26	張公子遇崔鶯鶯	遇	103	李令妻干歸評事	干			
27	楊生私通孫玉娘	通	私通	104	崔女怨廬郎年紀	怨	悽諧	
28	張浩私通李鶯鶯	通		105	張公嫌李氏醜容	嫌		
29	華春娘通徐君亮	通		106	陳處士暫寄師叔	暫寄		
30	何會娘通張彥卿	通		107	李大監傳語縣君	傳語		
31	楚娘矜姿色悔嫁	悔		108	却要燃燭照四子	照		
32	越娘因詩句動心	動		109	李福虛咽溺一甌	溺		
33	伴喜私犯張禪娘	犯		110	蘇東坡携妓參禪	參禪	淫戲	
34	陳吉私犯熊小娘	犯		111	史君實贈尼還俗	還俗		
35	王尹判道士犯姦	犯		112	陳沆嘲道士啗肉	啗肉		
36	蘇守判和尚犯姦	犯		113	蔣氏嘲和尚戒酒	戒酒		
37	趙飛燕私通赤鳳	通		114	韓妓與諸生淫雜	淫雜		
38	楊貴妃私安祿山	私		115	楚兒遭郭鍛鞭打	鞭打		
39	秦太后私通嫪毐	通		音樂	116	明皇愛花奴羯鼓	羯鼓	
40	李少婦私通封師	通			117	劉濬喜揚妓杖鼓	杖鼓	
41	崔徽私會裴敬中	會			118	薛嵩重紅線撥阮	撥阮	
42	碧桃屬意秦少遊	屬			119	朝雲爲老嫗吹簫	吹簫	

43	秦少遊減燭偷歡	偷	好合	120	白公聽商婦琵琶	琵琶	
44	楊師純跳舟結好	結		121	李生悟盧妓箏篴	箏篴	
45	楊端臣密會舊姬	會		122	趙象慕非烟振秦	振秦	
46	晏元子取回元寵	取		123	崔寶羨薛瓊彈箏	彈箏	
47	江致和喜到蓬宮	到		124	文君窺長卿撫琴	撫琴	
48	張子野潛登池閣	登		125	錢起詠湘靈鼓瑟	鼓瑟	
49	周簿切脈娶孫氏	娶		126	楊妃竊寧王玉笛	玉笛	
50	薛媛圖形寄楚材	寄	127	蕭史教弄玉吹簫	吹簫	情好	
51	王幼玉慕戀柳富	慕	128	沈翹翹善敲方響	方響		
52	孟麗娘愛慕蔣芾	慕	129	張紅紅善記拍板	拍板		
53	崔娘至死爲柳妻	至死	130	秦少遊文甲縛鍾	縛鍾		
54	玉簫再生爲韋妾	再生	131	白樂天辨華原磬	原磬		
55	王仙客得到無雙	得	132	虜騎感劉琨胡笳	胡笳		
56	張子野逢謝媚卿	逢	133	蚩尤畏黃帝鼓角	鼓角		
57	張倩娘離魂奔壻	奔	134	王喬遇浮丘吹笙	吹笙	奇遇	
58	韓夫人題葉成親	成親	135	麻奴服將軍鬻築	鬻築		
59	謝眞眞識韓貞卿	識	136	盛小叢最號善歌	善歌		
60	沈眞眞歸鄭還古	歸	137	永新娘最號善歌	善歌		
61	灼灼染淚寄裴質	淚寄	138	韓娥有繞梁之聲	聲		
62	盼盼陳詞媚涪翁	陳詞	139	秦青有遏雲之音	音		
63	楊生共秀奴同遊	同遊	140	楊貴妃舞霓裳曲	舞		
64	章導與梁楚雙戀	雙戀	141	蜀宮妓舞搖頭令	舞	妙舞	
65	柳耆卿因詞得妓	得	142	韋中丞女舞柘枝	舞		
66	崔郊甫因詩得婢	得	143	康居國女舞胡旋	舞		
67	沙吒利奪韓翃妻	奪	144	吳絳仙蛾綠畫眉	畫眉	靚粧	
68	陶奉使犯驛卒女	犯	145	壽陽主梅花粧額	粧額		
69	曹縣令朱氏奪權	奪	爭奪	146	茂英兒年少風流	風流	艷色
70	陸郎中媚娘爭寵	爭		147	楚蓮香國色無雙	國色	
71	漢成帝服謹恤駝	恤駝	淫戲	148	薛靈芸容貌絕世	容貌	
72	唐明皇咽助情花	情花		149	越州女姿色冠代	姿色	
73	袁寶兒最多憨態	憨態		150	越國美人如神仙	神仙	
74	李娃使鄭子登科	使	賢行	151	漸東舞女如芙蓉	芙蓉	
75	倩桃諫寇公節用	諫		152	薛瑤英香肌絕妙	香肌	
76	譚意哥教張氏子	教		153	麗媚娘玉膚柔軟	玉膚	
77	聶勝瓊事李公妻	事		154	虢夫人自有美艷	美艷	

이러한 형식은 관방에서 집필한 《太平廣記》의 類書적 기능을 민간에서 개인이 계승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대의 애정류 관련 이야기를 이처럼 집대성하여 분류한 문헌은 전무하며, 이후에는 羅燁의 《醉翁談錄》이나 馮夢龍의 《情史》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계승되었다. 《綠窓新話》의 편집자인 皇都風月主人은 개인으로서 전대의 애정류 고사를 분류하였으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산만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상기할 것은 당시에 애정류 고사를 전문적으로 口演하던 설화인들에게

이러한 참고서가 실용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겠다. 《綠窓新話》는 唐五代부터 전해오던 문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방에서 편찬한 《太平廣記》의 분류 체계를 계승한 類書이다. 그리고 이 책은 宋末元初의 인물로 추정되는 羅輝의 《醉翁談錄》과 明代 話本 小說의 대표적 작가라고 할 수 있는 龐夢龍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책은 애정소설을 주로 다룬 類書로서 소설사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IV. 《綠窓新話》의 소설사적 가치

1. 애정류 통속소설집의 효시

《綠窓新話》가 중국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시 한 번 제고할 만하다. 특히 話本小說史나 통속소설사에서 이 책은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역대의 애정소설을 총망라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宋代 당시는 물론이고 후대의 설화인이나 소설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은 크게 내용상의 통속화와 형식상의 격식화를 들 수 있다.

송대 도시구조의 변화와 시민 오락문화의 흥기는 문예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綠窓新話》는 문학의 가장 큰 주제인 애정류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류는 기존에 상층문인의 전유물로서 소비되었던 소설을 통속적인 관점에서 편집하여 일반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 직접 다가갔다기보다는 설화인이라는 매개인을 통해서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애정류 통속소설집의 효시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소설사적 가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이 책은 민간에서 만든 중국소설사상 최초의 애정류 통속소설집이다. 주지하다시피, 송대 이전에 나온 소설은 주로 단편의 형태를 이루다가 《傳奇》를 기점으로 소설집이 엮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太平廣記》가 관방

차원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민간에서 누구나 독서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綠窓新話》는 민간 차원에서 개인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애정류를 집대성하여 만든 소설집이기 때문에 소설사적 가치가 높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통속문학의 면모를 알 수가 있으며, 애정류 소설이 민간에서 각광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책은 화본소설사에서 소위 화본이라는 것이 송대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 현재 송대에 간행된 화본이나 화본소설은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단지 명대에 간행된 화본소설집을 통해 송대의 것으로 추정하는 작품만이 존재할 뿐이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도 즐기차게 주장했지만, 송대의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대에 판각한 문헌으로 송대의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綠窓新話》나 《醉翁談錄》과 같은 송대의 문헌을 통해서 당시에 통용되었던 ‘話本’의 형태를 유추하는 것이 보다 더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당시 설화인의 자질과 話本名目を 명확하게 제시한 《醉翁談錄》에는 분명 설화인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기록되어 있다. 《綠窓新話》는 일반인보다는 전문 설화인들이 보기에 적합하게 편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 책이야말로 ‘話本’의 최초 형태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더욱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책에 실린 작품은 비록 대부분 전대의 문헌에서 절록하여 이루어졌으나, 후대 소설과 희곡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작품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서사문학 전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邢鳳遇西湖水仙〉→《西湖二集》〈邢君瑞五載幽期〉
- 〈蘇東坡携妓參禪〉→《醒世恒言》〈佛印師四調琴娘〉
- 〈張浩私通李鶯鶯〉→《警世通言》〈宿香亭張浩遇鶯鶯〉
- 〈王尹判道士犯奸〉→《拍案驚奇》〈西山觀設錄度亡魂，開封府備棺追活命〉
- 〈蘇守判和尚犯奸〉→《歡喜冤家》〈一宵緣約赴兩情人〉
- 〈王子高遇芙蓉仙〉→宋元戲文〈王子高〉
- 〈金彥遊春遇會娘〉→《醉翁談錄》話本名目〈錦莊春遊〉

이상 열거한 작품들의 本事들을 문헌상으로 추적하면 모두 《綠窓新話》로 소급되며, 현재까지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외에도 전 작품을 분석하면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전소설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자료로 기능할 수가 있다.

2. '七言對句' 제목의 격식화

《綠窓新話》의 소설사적 가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설 제목의 격식화이다. 《太平廣記》의 목차는 《綠窓新話》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제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李娃傳〉이나 〈鶯鶯傳〉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綠窓新話》는 154편 모두 '七言'으로 되어 있으며 두 작품마다 대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형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의 글자수나 대구의 형태는 이후 소설의 제목에 그대로 반영되어 주된 형식으로 탈바꿈되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은 이미 북송 시기에 나온 《靑瑣高議》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그것은 원제목 밑에 부제로 달려 있다. 그러나 《綠窓新話》는 '七言'을 원제목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목을 통해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겨 있다.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太平廣記》	《靑瑣高議》	《綠窓新話》	《醉翁談錄》
〈天台二女〉		〈劉阮遇天台女仙〉	〈劉阮遇仙女於天台山〉
〈裴航〉		〈裴航遇藍橋雲英〉	〈裴航遇雲英於藍橋〉
	續集〈賢鷄君傳〉	〈賢鷄君遇西真仙〉	
〈封陟〉		〈封陟拒上元夫人〉	〈封陟不從元仙妹命〉
	續集〈桃源三夫人〉	〈陳純會玉源夫人〉	
	前集〈書仙傳·曹文姬本系書仙〉	〈任生娶天上書仙〉	
〈崔書生〉		〈崔生遇玉卮娘子〉	
〈鄭德璘〉		〈德璘娶洞庭韋女〉	
	前集〈長橋怨·錢忠長橋遇水仙〉	〈錢忠娶吳江仙女〉	
	前集〈溫泉記·西蜀張翕遇太真〉	〈張翕驪山遇太真〉	

《太平廣記》	《青瑣高議》	《綠窓新話》	《醉翁談錄》
〈韋安道〉		〈韋生遇后土夫人〉	
〈柳毅傳〉		〈柳毅娶洞庭龍女〉	〈柳毅傳書遇洞庭水仙女〉
		〈金彥遊春遇會娘〉	話本名目〈錦莊春遊〉
		〈崔護覓水逢女子〉	話本名目〈崔護覓水〉
		〈郭華買脂慕粉郎〉	話本名目〈粉合兒〉
〈鶯鶯傳〉		〈張公子遇崔鶯鶯〉	話本名目〈鶯鶯傳〉
	別集〈張浩·花下與李氏結婚〉	〈張浩私通李鶯鶯〉	話本名目〈牡丹記〉
		〈楚娘矜姿色悔嫁〉	〈判楚娘悔嫁村夫〉
		〈華春娘通徐君亮〉	〈華春娘題詩君亮成親〉
		〈楊生私通孫玉娘〉	〈靜女私通陳彥臣〉
		〈伴喜私犯張禪娘〉	〈致妾不可不察〉
		〈蘇守判和尚犯姦〉	〈子瞻判和尚遊娼〉
	前集〈驪山記·張翥遊驪山作記〉	〈楊貴妃私安祿山〉	
	前集〈孫氏記·周生切脈娶孫氏〉	〈周薄切脈娶孫氏〉	
	前集〈王幼玉記·幼玉思柳富而死〉	〈王幼玉慕戀柳富〉	
		〈崔娘至死爲柳妻〉	話本名目〈柳參軍〉
	前集〈流紅記·紅葉題詩娶韓氏〉	〈韓夫人題葉成親〉	
〈王宙〉		〈張倩娘離魂奔婿〉	
		〈沙吒利奪韓翃妻〉	〈韓翃柳氏遠離再會〉
		〈曹縣令朱氏奪權〉	〈婦人嫉妬〉
〈李娃傳〉		〈李娃使鄭子登科〉	
	別集〈譚意哥·記英奴才華秀色〉	〈譚意哥教張氏子〉	
	前集〈鄭路女·鄭路女以言排強賊〉	〈鄭小娘遇賊赴江〉	
		〈張建封家姬吟詩〉	話本名目〈燕子樓〉
		〈薛嵩重紅線撥阮〉	話本名目〈紅線盜印〉
		〈文君窺長卿無琴〉	話本名目〈卓文君〉

이상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綠窓新話》의 제목형식은 북송과 남송을 거치면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靑瑣高議》에서 먼저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제의 형식으로 제시되었고, 《綠窓新話》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七言’의 형식을 격식화시켰다. 명대에 간행된 화본소설 풍몽룡의 ‘三言’과 抱甕老人의 《今古奇觀》 또한 이를 계승하여 ‘七言’ 혹은 그 이상의 字句로 제목을 형식화하고 있다. 특히 凌濛初의 ‘二拍’과 같은 경우는 〈烏將軍一飯必酬, 陳大郎三人重會〉처럼 대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綠窓新話》의 제목 형식에서 그 형식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三國演義》나 《水滸傳》과 같은 章回小說도 예외는 아닌데, 다만 《剪燈新話》와 같은 文言 계통의 소설들은 이러한 제목 형식을 따르지 않고, 《太平廣記》의 제목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곧 《綠窓新話》가 형식면에서도 통속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는 점을 의미한다.

V. 나가는 말

본고에서 필자는 《綠窓新話》라는 소설 문헌이 지닌 책의 성격과 소설사적 가치에 대해서 주로 고찰하였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가치에 비해서 기존 국내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했던 바, 필자는 초보적인 연구를 통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책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송대의 개방적인 도시구조와 그로 인한 시민 오락문화의 흥기는 문예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켰고, 그 가운데 애정류의 이야기들은 문화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綠窓新話》와 《醉翁談錄》과 같이 통속적인 이야기를 주로 담은 소설집이다.

둘째, 중국 학계에서는 아직 이 책의 성격을 놓고 의론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대로부터 전해지던 과 당시에 유행하던 애정류 소설을 한 책에 모아 소설집으로 엮었고, 그것은 類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책의 각 편에 수록된 내용이 압축적으로 節錄되었고, 또 어떤 작품들은 아예 詩詞를 위주로 정리된

점으로 보아 본 類書의 기능은 일반 대중들의 독서물이라기보다는 전문 설화인을 위한 참고서에 가깝다고 보았다.

셋째, 《綠窓新話》는 중국소설사에서 문언소설의 흐름과 궤를 달리하는 통속소설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의 통속성이 이전에 비해 훨씬 과감할 뿐만 아니라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七言’을 위주로 한 제목의 형식은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히 통속소설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소설과 희곡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本事 이야기가 이 책에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향후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拙稿, 〈北宋 小說集《青瑣高議》小考〉, 《中國小說論叢》第35輯, 2011.
- 拙稿, 〈《醉翁談錄》의 중국소설사적 의미〉, 《漢文教育研究》第23號, 2004.
- 錢仲聯, 傅璇琮, 王運熙 等 主編, 《中國文學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7.
- 黃卓越, 桑思奮 主編, 《中國大書典》, 北京, 中國書店, 1994.
- 汪玢玲 主編, 《中華古文獻大辭典(文學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4.
- 馬良春, 李福田 主編, 《中國文學大辭典(第七卷)》,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1.
- 寧稼雨, 《中國文言小說總目提要》, 濟南, 齊魯書社, 1996.
- 黃霖 主編, 《中國歷代小說辭典(第二卷)》,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3.
- 史仲文, 胡曉林 主編, 《中華文化精粹分類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8.
- 秦亢宗 主編, 《中國小說辭典》, 北京, 北京出版社, 1990.
-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0.
- 程毅中, 《宋元小說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8.
- 羅燁, 《醉翁談錄》, 台北, 世界書局, 1965.
- 周楞伽 箋注, 《綠窓新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秦川, 《中國古代文言小說總集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董上德, 《古代戲曲小說敘事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7.

- 朱熹注,《楚辭集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
- 王國維,《王國維遺書》,上海,上海書店,1983.
- 陳寅恪,《金明館叢稿二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 歐陽脩,《歸田錄》,北京,中華書局,1997.
- 王溥,《唐會要》,台北,世界書局,1960.
- 郭齊家,《中國古代考試制度》,台北,臺灣商務印書館,1995.
- 加藤繁,《中國經濟史考證》,北京,商務印書館,1959.
- (宋)吳自牧,《夢梁錄》,西安,三秦出版社,2004.
- (宋)耐得翁,《都城紀勝》,台北,大立出版社,1980.
- (宋)西湖老人,《繁勝錄》,台北,大立出版社,1980.
- 羅燁,《醉翁談錄》,台北,世界書局,1965.
- (唐)李肇,《唐國史補》卷下(《唐五代筆記小說大觀》),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
- 歐陽代發,《話本小說史》,武漢,武漢出版社,1997.
- 黃霖,韓同文 選注,《中國歷代小說論著選》,江西,江西人民出版社,2000.
- 元稹,《元稹集》,北京,中華書局,2000.
- 鄧廣銘,〈談談有關宋史研究的幾個問題〉,《社會科學戰線》第2期,1986.
- 王慶華,〈《青瑣高議》《綠窓新話》等標題形式並非“做話本”〉(《蘭州學刊》 2010年第7期).

【中文提要】

本論文主要以《綠窓新話》為研究對象進行研究其成書的社會環境和性質以及小說史的地位。本文通過初步的研究得出以下的研究成果：

第一，在宋代都市發展的過程中，隨着舊的坊市制的崩潰，商店可以在城內外沿街設置，高大的酒樓聳立起來，商品經濟空前活躍，同時開始出現了都市文化娛樂市場——瓦舍。該書是在這樣社會背景下產生的。

第二，《綠窓新話》雖為披着文言小說的外衣，但從它所收的內容和形式來看，的確是‘愛情類書’。每篇皆為節錄且內容甚簡，因而一般讀者閱讀起來，不太合適，却接近宋代說話人參考書所用。

第三，《綠窓新話》與以前文言小說集不同，內容十分通俗，尤其是採用‘七言句’題目形式，在除目形式上，起了承上啓下的橋梁作用。加之，此書在韓國

學界未受到重視，但它在多方面對後世產生了不可或缺的影響。

最後，此書雖多半是節錄舊文，但對於後世的小說，戲曲影響很大，許多小說，戲曲的故事都從本書中取材，所以《綠窓新話》中所載的本事對古典小說研究者極有價值。

【主題語】

綠窓新話, 宋代, 話本, 愛情小說, 類書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